대학생들 '판타지 소설'에 빠지다

■ 전남대·조선대생 어떤 책 즐겨 읽나

'묵향' '비뢰도' '해리포터' 등 대출 10위권내 압도적 차지

'대학생들의 머리가 환상에 점령당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이 가장 즐겨 있는 책은 상상의 세계를 소재로 다룬 판타지 소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에 부담 없고 읽고 나서도 깊은 사고가 필요 없어 중·고등 학생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던 판타지 소설이 이른바 지성인으로 불리는 대학생들에게도 널리 읽히고 있는 것이다.

14일 조선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대출이 많았던 책 10종을 선정한 결과, 판타지 소설이 8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첫 번째는 PC통신 연재를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출간된 무협 판타지 소설인 '묵향'(전동조·스카이북)이었고, 2위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익혀 영화로까지 제작된 '해리포터시리즈'(조앤K.롤링·문학수첩)였다.

이외 '소설 영웅문'(김용·고려원) 3위,'퇴마록'(이우혁·들녘) 5위, '가즈 나이트'(이경영·자음과 모음) 6위, '소드 엠페러'(김정률·북박스) 8위, '비뢰도'(검류흔·청어람) 9위, '황제의 검'(임무성·북박스) 10위 등 무협 판타지 소설이 뒤를 이었다.

이문열이 편역한 '삼국지'(민음사)가 4위,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한길사)이 7위를 각각 기록하며 '베스트셀러'로서의 명성을 겨우 지켰다.

전남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2006년 문학 분야 대출도서 베스트 5'에 '해리포터와 혼혈왕자'(조앤 K. 롤링·문학수첩)가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2위 '비뢰도'(검류흔·청어람), 3위 '묵향'(전동조·스카이북), 5위 '하얀늑대들'(윤현승·파피루스) 등 판타지 소설이 4권이나 포함됐다.

쇼핑중독자인 도시 여성의 생활을 수다 떨 듯 가벼운 문체로 풀어낸 '쇼퍼홀릭 : 레베카, 쇼핑의 유혹에 빠지다'(소피 킨셀라·황금부엉이)가 4위를 차지하며 판타지 소설이 아닌 책 중 유일하게 5위에 들었다.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들이 즐겨 있는 판타지 소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조선대 도서관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판타지 소설을 즐겨 있는다는 것은 독서경향이 지나치게 오락적이고 감각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의미"라며 "사고력 신장이나 다양한 지식·정보습득을 위해서는 동·서양의 고전이나 인문 사회과학 서적 등을 골고루 읽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노을 붉게 물든 하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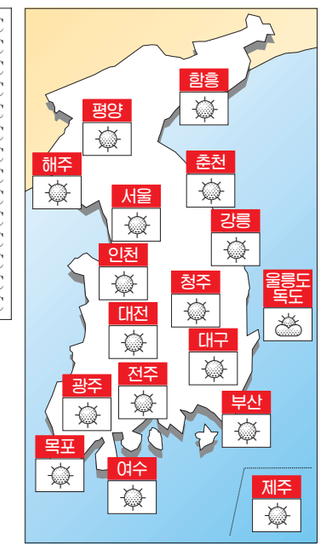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2월 15일 (음 12월 28일) ◇전국날씨

광 주	맑음	-2~7℃
목 포	맑음	-1~7℃
여 수	맑음	0~7℃
완 도	맑음	1~7℃
구 례	맑음	-4~7℃
해 남	맑음	-3~8℃
장 흥	맑음	-3~8℃
고 흥	맑음	-2~8℃
순 천	맑음	-4~8℃
영 광	맑음	-3~7℃
진 도	맑음	-3~7℃
전 주	맑음	-3~6℃
남 원	맑음	-4~6℃
정 읍	맑음	-3~5℃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4.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5~4.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5~4.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5~4.0m

목 포 밀물 〈 12:56 --:-- 썰물 〈 05:28 18:33
여 수 밀물 〈 08:01 19:59 썰물 〈 01:14 14:10



▲해뜸 07:19 ▲해짐 18:14 ▲달뜸 05:41 ▲달짐 15:2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날 씨						
최저/최고	-2/9	3/8	4/9	1/10	2/10	2/9

광주과기원 학위수여식

광주과학기술원(원장 허성관)은 14일 오후 2시 광주과기원 행정동 대강당에서 2007년도 학위수여식을 갖고 박사 24명, 석사 101명 등 모두 125명에게 석·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배꼽티 입으면 허리 굵어진다

살은 빠져도 피하지방층 두꺼워져

선선한 날씨에 허리를 드러내는 '배꼽티'를 입으면 살은 약간 빠지지만 허리가 두꺼워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서울대 의류학과 염정하씨의 석사논문에 따르면 허리가 노출된 옷을 입은 여성은 불감증설량(不感蒸泄量·일정시간에 몸에서 증발되는 수분량)이 증가해 체중은 감소하는 반면 허리의 피하지방층이 두꺼워져 허리 둘레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는 여대생 6명을 섭씨 19도의 서늘한 환경에서 팔 노출(민소매)·다리 노출(짧은 바지)·허리 노출(배꼽티) 등 3가지 의복 형태에 따라 2명씩 나눠 실험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실험은 식습관과 수면량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위별 피부 온도·에너지 대사량·불감증설량·심박수·피하지방층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측정으로 이뤄졌다. 다리를 노출한 여성들의 불감증설량은 실험 초기 단위면적(㎡)당 17.3g에서 15.3g으로 줄어든 반면 허리를 노출한 여성은 17.1g에서 17.7g으로 늘어나 배꼽티를 입은 여성들의 체중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청소년 10명중 1명 "난 휴대폰 중독"

정통부, 네티즌 대상 조사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스스로 휴대전화 중독상태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부는 전국 3천500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휴대전화 중독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 스스로 휴대전화 중독상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0.1%, 성인은 4.1%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휴대전화 중독과는 거리가 멀다'(34.9%), '즐겨 사용하지만 중독은 아니다'(55%)로 답해 인터넷처럼 중독 상태가 심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인터넷 중독률은 청소년의 경우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이 2005년 각각 2.6%, 12.7%에서 2006년에는 2.1%, 11.9%로 떨어졌다. 인터넷 중독 위험사용자군도 14.0%로 전년도 15.3%에 비해 1.3%포인트 낮아졌다. 성인의 경우 고위험군 및 잠재적위험자군이 각각 1.5%, 5.5%이며 인터넷 중독 위험사용자군이 7%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위험사용군의 행태 분석 결과 시력 저하 및 수면부족 등 건강의 악화, 가족과의 마찰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항목 점수가 전년보다 늘어났고 인터넷 이용으로 수업을 빠지거나 약속을 어기는 등의 '일탈행동' 항목도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필상 고려대총장 '불안한 신임'

찬성률 88%…투표율은 39% 저조

고려대 이필상 총장은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 13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총장 신임투표에서 찬성률 88.7%로 과반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투표율이 39.2%로 저조해 향후 신임 투표의 신뢰성에 대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장의 신임투표 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창헌(정보통신대학장) 교수는 투표 대상인 전임교원 1천219명 중 478명이 투표에 참여, 424명이 신임에, 54명이 불신임에 각각 투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임 투표 결과 과반 득표로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 총장은 총장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의 한 측근은 "(이필상) 총장이 내일 중 입장표명을 할 계획이다.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4년간 학교를 잘 이끌어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자재 납품 리베이트 교장 등 3명 집유 선고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신설 학교 기자재 납품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W중학교 김모(55) 교장과 같은 학교 윤모(여·46) 행정실장, 전 S중학교 윤모(51) 행정실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 S중학교 윤모 행정실장과 전 W중학교 행정실장 윤씨에 대해 각각 2천580만원과 1천956만원을, 전 W중학교 김 교장에게는 95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최권일기자 cki@

문화재 발굴 공금 유용 광주지검, J大 교수 수사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호)는 14일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에서 전국 국립대 박물관에 대한 일제 감사를 벌인 결과, 문화재 조사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따낸 공금을 유용한 J대 A교수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각종 문화재 발굴 조사 사업을 수주하면서 따낸 공금을 조교나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으로 분산해 수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문화재 발굴 조사 사업에 참여한 조교와 연구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A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02년 김해 추락 중국민항기 유족에 9억원 지급 판결

지난 2002년 4월 중국국제항공공사(CA) 소속 여객기의 경남 김해 돗대산 추락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탑승객들의 가족에 대해 항공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14일 당시 사고여객기에 탑승했다 숨진 김모씨 등 피해자 6명(사망자 5명, 부상자 1명)의 가족 21명이 CA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공사 측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7억여원을 포함 모두 9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원고 측의 자문역을 해온 찰스 허만 미국 변호사는 "지난 97년 8월 대한항공 괌 사고 때도 사망자에게 평균 24억원의 배상이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이번 판결은 국제적 기준에 크게 미달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